

LG화학, GM에 2차전지 추가 공급

로이터, 시보레 볼트 수요증가 대응 ... 2012년 초 미국공장 가동 예정

미국 자동차기업 GM이 LG화학에 2차전지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LG화학에 11월 양산하는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에 장착될 중대형 2차전지를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월17일 외신 보도와 LG화학에 따르면, GM은 시보레 볼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계획보다 생산을 확대하기로 하고 LG화학에 2차전지를 추가 주문했다.

로이터통신은 GM의 최고경영자 톰 스테판이 “9월부터 시보레 볼트용 2차전지를 공급하는 LG화학에 2차전지 생산을 증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보레 볼트의 생산 확대분이나 LG화학에 대한 추가 주문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GM은 시보레 볼트 생산 목표를 2011년 1만대, 2012년 4만5000대라고 밝힌 바 있다.

LG화학은 GM과 시보레 볼트에 6년간 독점적으로 2차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2012년 초 생산을 목표로 미국 Michigan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7>